

# 안전으로 강서의 신(新) 중심을 만들다

## 롯데건설 김포국제공항 SKY PARK 조성사업현장

취재 · 사진 | 연슬기 기자(skyway@safety.or.kr)

1990년대까지만 해도 김포국제공항은 외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유일한 관문으로, 늘 관광객과 국제적인 인사들로 북적였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김포공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인천국제공항이 새로 생기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가 다소 떨어지고, 찾는 발길도 크게 줄어든 것.

하지만 김포공항은 조용히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SKY PARK 조성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대지면적만 19만5천여㎡에 달하는 옛 국제공항주차장부지에 쇼핑몰(백화점), 영화관, 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 11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실로 강서지역에 새로운 중심지가 만들어 지는 것.

김포공항의 변신이라는 점도 화두지만, 이 사업을 빛나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안전'이다. 이곳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2007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무재해 300만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안전으로 강서의 신 중심을 만들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봤다.

생각하고 지키는 롯데





### ‘추락, 낙하·비래, 감전’ 재해 예방에 총력

이곳 현장 안전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 세가지 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장구의 지급을 기본으로 80대에 달하는 곤돌라 전수 안전점검, 방호선반·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등 설치, 개구부 관리 철저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들 3대 재해에 최적화한 다양한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추락재해의 위험요소를 제거키 위해 사다리 및 말비계를 사용한 작업을 금지시키고 이동식 고소작업대(속칭 랜탈)로만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이때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전면허시험과정을 마련해 과정을 통과한 근로자만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곳 현장은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커튼월공사, 외부석공사, 내부수장공사, 조경공사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자재 대부분이 불에 취약하다보니 요즘에는 ‘화재 예방’을 또 하나의 중점 과제로 선정,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은 소화기 라인 기둥마다 소화기, 방화사, 방화수통 등을 비치해 놓은 것은 물론 매층마다 이동식 소화차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체계적인 안전교육 ‘눈길’

체계적인 ‘안전교육 과정’도 이곳이 자랑하는 안전관리의 한 부분이다. 신규·특별교육 등 법정교육의 실시는 기본이고, 그 외적으로 이곳은 한 달에 두 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의 경우 첫 번째 교육은 시공사인 롯데건설 안전팀 주최로 열리고, 두 번째 교육은 협력사들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이는 협력사들을 수동적인 안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주체로 나서게 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다.

또 이곳은 안전팀원들을 수시로 외부 교육과정에 보내 최신 안전교육기법을 배워오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산업안전설계기관의 전문가도 초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상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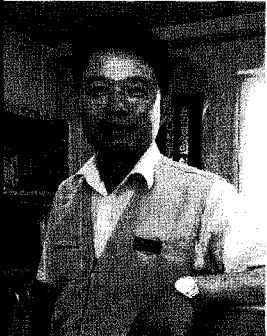
### 빈틈없는 ‘계획’이 ‘안전’을 보장한다

이곳은 철저히 계획에 따른 현장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건축부서가 용접·용단작업, 밀폐공간작업, 유해물질취급작업, 기타 화기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팀은 즉각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을 세우고 작업 시 실시간으로 안전관리에 나서는 것.

특히 이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다. 조금만 허술하거나 계획서를 내지



않을 시 즉각적으로 '작업중지'가 내려지는 것. 때문에 이곳 현장에선 하도 작업중지가 많아서 공기를 맞추기 어렵단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안전팀의 타협 없는 안전활동에 힘입어 이곳 현장에서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가 생활화되었으며, 건축부서도 안전만큼은 최우선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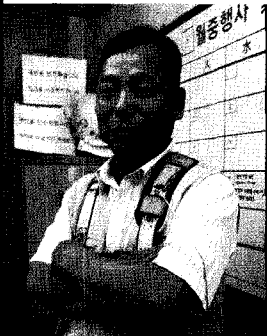


공 성 태 소장

### 안전은 개혁이 아닌 문화를 만드는 것

저는 항상 현장이 개설되면 우리 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안전은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궁극적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아울러 안전의식의 변화를 이루어서 안전을 건설현장의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현장에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롯데건설 뿐만 아니라 전 건설사 그리고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한다면 건설재해는 분명히 줄어든 것입니다.



윤 성 부 안전팀장

### 감성에 기본을 더하면 안전은 완성된다

2000년대 들어서 감성안전이 건설현장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감성안전만으로는 인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성안전은 확고한 룰이 잡혀 있는 현장에 지리 잡을 때 비로써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럼 룰이란 무엇이나, 바로 현장 초창기에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 작업에 임하는 협력사와 근로자들에게 기본에 입각한 안전의식을 확고히 심으면 그 뒤부터 안전은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감성안전도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이를 명심하시고 전국 모든 건설현장이 무재해를 이룩하길 바랍니다.

